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의 ‘안녕감’에 대한 관계적 이해*

이수정**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영국 뉴몰든의 코리언 종족 집거지(ethnic enclave)에서 진행한 현장연구 과정에서 만난 북한이주민들은, 영국 사회에서 계급적·인종적 소수자이며 일상에서 여전히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이 글은 이러한 현재적 삶에 대한 긍정적 표현들과 그 표현들을 통해 드러나는/구성되는 생각과 감정의 총체를 ‘안녕감’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맥락화된 이해를 시도한다. 사람들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서사가 항상 (존재론적이기보다) 관계적 맥락을 가진다는 인류학적 논의에 기대어, 이 글은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들의 ‘안녕감’을 다양하고 중층적인 조우(encounter)의 상황적 결과물로 제시한다. 즉, 이들의 ‘안녕감’을 독립적이고 본질적인 감정이 아닌, “차이를 가로지르는 일상적 관계를 통해 구성되고 재구성되”며 동시에 역사성이 있는 문화적 구성물로 위치시킨다.

주제어: 북한이주민, 북한난민, 영국, 뉴몰든, 안녕감, 마음, 관계적 이해, 조우의 인류학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7S1A3A2065782). 본고의 심사를 맡아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세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교수.

1. 들어가며

필자는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영국 뉴몰든의 코리언 종족 집거지에서 진행된 현장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북한이주민들이 뉴몰든에서의 자신들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톤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¹⁾²⁾ 이러한 톤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잦아졌다. 예를 들어 50대 남성 노동자인 A 씨는 2018년 여름 퇴근길 만난 필자에게 그 날 자신이 했던 작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몸 쓰는 일이나까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이 정도면 일 없지요.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어떻게 그러고 살았는지…… 여기서는 사는 게 그래도 괜찮죠. 몸 써서 살긴 하지만…… 이렇게 사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이만큼 살다 가는 건 감사한 일이지요.

- 1) 영국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 이외 가장 많은 북한이주민들이 거주하는 국가로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이주한 인원만도 6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부분 2000년대 중반 난민 자격으로 영국 사회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수(400명 안팎)는 런던 남서쪽의 뉴몰든 지역에 위치한 코리아타운에서 생활하고 있다. 뉴몰든 지역의 특징과 이 지역 거주 북한이주민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이수정·이우영, “영국 뉴몰든 코리아 타운 내 북한이주민과 북한난민 간의 관계와 상호인식,”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1호(2014); HaeRan Shin, “The Territoriality of Ethnic Enclaves: Dynamics of Transnational Practices and Geopolitical Relations within and beyond a Korean Transnational Enclave in New Malden, London,”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Vol.108, No.3(2018); Jay Jiyoung Song and Markus Bell, “North Korean secondary asylum in the UK,” *Migration Studies*, Vol.7, No.2(2019), pp.160~179.
- 2) 2013년부터 2018년에 이르는 5년간의 세월 동안 영국 사회에서 이들의 공식적 지위는 많은 경우 ‘난민’에서 ‘영주권자’ 혹은 ‘시민’으로 바뀌었다. 이를 포괄하는 용어로,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주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무더운 여름 날, 무거운 짐을 옮기느라 땀범벅이 되어 종일 고생했던 상황을 실감 나게 묘사한 끝에 그는 영국에서의 삶을 “이만큼 살다 가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의미화했다. 한편 40대 여성 노동자 B 씨는 자신의 집에 필자를 초대해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다 갑자기 현재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아침마다 창문 커튼을 열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새소리를 들어요. 그 새소리가 참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한국에도 좋은 것이 많지만, 탈북자라는 게 참 싫고 싫어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여긴 이주민들이 정말 많으니까 참 그게 너무 좋아요. 이제 진짜 고향을 찾은 것 같아요.}³)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깐 쉬 후 오후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점심시간 직전 짬을 내어 이루어진 필자와의 만남에서 “이제 진짜 고향을 찾은 것 같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외에도 필자는 많은 북한이주민과의 만남에서 이들이 말과 표정, 몸짓으로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물론 이들의 현실적 삶이 마냥 장밋빛인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 난민 자격을 얻은 지 10년이 넘어서 대부분 영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덕분에 체류 문제가 해결되었고 노동력이 부족한 한인 종족 경제 구조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긴 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이 지적하듯 이들은 여전히 영국 사회에서만 아니라 뉴몰든

3) 연구 대상자의 이야기에 대한 직접인용을 간접인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간접 인용(즉 필자의 사후적 재구성)의 경우 중괄호(())를 사용한다. 이러한 구분과 관련하여 연구방법 논의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소수자이다.⁴⁾ 뉴몰든의 한인 커뮤니티 자체가 영국 사회 주류와는 거리가 있는 소수(코리안) 종족 집거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 집거지 내에서도 북한이주민은 남한이주민에 비해 소수자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를 Shin은 출신국의 위계가 디아스포라 종족 집거지의 집단 간 위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즉 중국이나 북한보다 경제력 차원에서 우위에 있는 남한 출신의 이주자들이 영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이에서도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며,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북한 출신의 이주자들이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는 것이다.⁵⁾ Song과 Bell 역시 북한이주민들이 주류인 한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영어에 익숙해진 자녀들과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례를 전하며, ‘더 나은 삶’이라는 영국으로 건너올 때의 꿈이 일상에서 배반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⁶⁾

뉴몰든 현장연구 과정에서 필자 또한 다양한 맥락에서 북한이주민들의 고투와 갈등, 협상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상당수에게서 영국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의미화하는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만족한다,” “행복하다,” “괜찮다,” “낫다,” “고향

4) 이수정·이우영, “영국 뉴몰든 코리아 타운 내 남한이주민과 북한난민 간의 관계와 상호인식”; HaeRan Shin, “The Territoriality of Ethnic Enclaves: Dynamics of Transnational Practices and Geopolitical Relations within and beyond a Korean Transnational Enclave in New Malden, London”; Jay Jiyoung Song and Markus Bell, “North Korean secondary asylum in the UK.”

5) HaeRan Shin, “The Territoriality of Ethnic Enclaves: Dynamics of Transnational Practices and Geopolitical Relations within and beyond a Korean Transnational Enclave in New Malden, London,” p.758.

6) Jay Jiyoung Song and Markus Bell, “North Korean secondary asylum in the UK,” p.175.

같다.” “희망이 있다” 등의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필자가 발견한 뉴몰든 북한이주민들의 긍정적 느낌과 만족감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석 중 하나는 북한이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객관적 상황과는 별개로, 어떤 이유에서 주관적인(왜곡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이들이 실제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필자와의 만남에서 그러한 생각과 감정 표현을 의식적으로(거짓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들의 이러한 감정과 생각이 실재하는지 아닌지, 혹은 진짜인지 거짓인지 등을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들이 자신들의 현재적 삶을 재현하는 언어, 몸짓, 표정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맥락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들의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안녕감’이라는 개념을 빌어 살펴보되 인류학의 ‘관계론’적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안녕감’을 맥락화한다. 즉 이 글은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들의 ‘안녕감’이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비교의 맥락에서 구성됨을 드러냄으로써 마음의 일단인 ‘안녕감’이 항상 다른 존재들 및 상황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 즉 차이를 가로질러 —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⁷⁾

이 글의 바탕이 되는 자료는 2013년 1~2월 한 달, 2016년 8월 일주일, 그리고 2018년 7~8월 한 달 동안의 약 3회에 걸친 필자의 영국

7) “안녕감”에 대한 인류학적 선행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몇몇 인류학자는 인간의 ‘감정’과 관련한 연구에서 관계성과 맥락성을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다. 다음 연구를 참고하라. 정향진, “감정의 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 제46권 3호(2013); Andrew Beatty, “Anthropology and Emotion,”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Vol.20, No.3(2014).

뉴몰든 지역에서의 민족지적 현장연구(ethnographic fieldwork)을 통해서 수집되었다. 2013년 1월 한 달간의 현장연구는 뉴몰든의 남북 출신 주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문과 면담 등 보다 공식적인 형태의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첫 현장연구이니만큼 연구 대상자와 낯을 익히고 신뢰(rapport)의 기반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었다. 이 현장연구 이후, 필자는 몇몇 주요 연구 대상자들과 카톡 대화나 한국 방문 시의 만남 등을 통해서 라포를 쌓아나갔고 이들의 도움으로 2016년 방문에서는 북한이주민 가정에서 하숙을 하며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현장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2018년 여름의 현장연구 또한 북한이주민 가정에서 하숙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북한이주민의 집, 카페 등에서의 비공식적 만남과 모임, 쇼핑과 런던으로의 짧은 여행길 등 일상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논의하는 북한이주민들의 ‘안녕감’은 공식적 인터뷰를 통해서보다는, 주로 일상 속의 수다의 과정에서 발화/발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류학자들이 주로 수행하는 ‘현장연구’의 방법론적 특징에서 비롯된다. ‘현장연구에 기반한 에스노그래피’라는 인류학적 방법론의 근대적 전통을 수립한 학자로 널리 알려진 Malinowski는 그의 저서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서태평양의 항해자들)』에서 사회 조직에 대한 공식적 자료 수집과는 구별되는 “실질적 삶의 무제한성”에 대한 접근과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내부자적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자료는 전통적 방식의 공식적 인터뷰를 통해서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발화와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⁸⁾ 이런 의미에서 필자가 관찰과 대화를 통해 발견한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들의 ‘안녕감’도 장기간의 현장연구를 통해서 접근 가

능했던 일상이라는 비공식적 장에서 획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연구 대상자의 일상에 비교적 장기간 참여하면서 수행하는 현장연구 방법이 연구 대상자의 반응성을 줄이면서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는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의 상당 부분이 외부에서 온 연구자와 연구 대상 사회에서 특정한 위치성을 가진 연구 대상자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이라는 주장에 의해 보완되어 왔다.⁹⁾ 조금 다른 맥락에서 살펴보면 인류학적 현장연구에 기반하여 생산된 지식은 연구자가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말과 행동을 참여‘관찰’ 하려 노력한 결과물인 동시에, 연구자의 참여가 만들어낸 ‘참여’관찰의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다.¹⁰⁾ 이 연구 또한 ‘상황적 지식’이자 ‘참여’와 ‘관찰’의 긴장 속에서 발생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인터뷰 상황이 아닌 일상적 참여관찰의 상황 속에서 수집된 자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인용된 많은 대화는 녹음, 녹취된 내용이 아니며, 현장에서 간단히 노트한 내용을 연구자가 사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자료의 성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은 중괄호()로 표시한다. 더불어, 이들의 “안녕감”에 대한 맥락화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글의 상당부분은 논문 서두에 인용한 50대 남성 A 씨와 40대 여성 B 씨의 내러티브

8) Bronislaw Malinowski,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London: Routledge, 1922); Andrew Beatty, “Anthropology and Emotion,” p.547에서 재인용

9) Donna Haraway, “Situated knowledge: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Vol.14, No.3(1988), pp.575-599.

10) 이용숙 외,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일조각, 2012), 107쪽.

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관찰/인터뷰 자료는 필요할 경우 보완적으로 활용한다.¹¹⁾

2. ‘안녕감’과 관계적 비교

이 글에서 논의하는 북한이주민들의 ‘안녕감’은 난민들 스스로가 발화하는 용어, 즉 연구 대상자의 개념이 아니다.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높은 (혹은 낮은) 안녕감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연구자가 뉴몰든에서 만난 북한이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마음을 언어, 표정, 몸짓 등으로 나타내는 것을 포착하여 이를 논의하기 위해 차용한 개념이다. 즉, 이들의 “언어, 표정, 몸짓 등이 재현하는 삶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생각의 총체”를 ‘안녕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심리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주관적 안녕감’에 가까운 개념이다.¹²⁾ 심리학에서 ‘주관적 안녕감’ 개념은 글로벌한 맥락에서의 ‘삶의 질 연구’의 유행과

11) 더 충분한 맥락화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생애사가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뉴몰든 북한이주민 커뮤니티가 매우 작은 규모인 데다 신변 안전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들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개인사는 이들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소개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논문의 주요한 논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조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맥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중요시하는 인류학자로서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불편하긴 하지만, 현장과 연구 대상자의 특수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판단하였다.

12) 이 글에서 ‘안녕감’은 ‘well-being’의 번역어이다. Well-being을 ‘안녕’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체로 (특히 ‘subjective well-being’의 경우) ‘안녕감’으로 번역하는 관례가 있어 이를 따랐다.

더불어 대두되었다.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연명술을 비롯한 다양한 의학적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의학과 철학 분야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한 의학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도구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사회 및 개인의 건강 및 행복과 관련된 개념으로 확장되어 사용되어 왔다.¹³⁾

삶의 질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이루어져 왔다. 우선 사회학자들이 주도한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로서, “개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외부환경조건의 수준”으로서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 수준, 사회적 신분, 소득, 여가시간, 건강상태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가 대표적인 외부환경조건에 포함된다.¹⁴⁾ 객관적 삶의 질 연구는 수치화에 유리하고 다양한 사회집단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¹⁵⁾ 그런데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 삶의 질이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나 행복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격차에 주목한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왔다.¹⁶⁾ 일부 학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을 ‘행복’ 또는 ‘만족도’라는 개념과 호환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수는 ‘주관적 안녕감’이 ‘행복’ 또는 ‘만족도’

13) Maddalena Pennacchini, Marta Bertolaso, Marta M. Elvira and Maria Grazia De Marinis, “A brief history of the Quality of Life: its use in medicine and in philosophy,” *Media humanities*, Vol.162, No.3(2011), pp.99~103.

14) 김신영·백혜정,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제42권 6호(2008), 142쪽.

15) 김신영·백혜정, 위의 글, 142쪽.

16) 김신영·백혜정, 위의 글, 142~143쪽; 박종일 외,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제44권 2호(2010), 124쪽.

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기도 하고 ‘객관적 삶의 질’과 함께, 혹은 이에 대비해서, 사용하기에 유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입장 또한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과 삶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뉘 볼 수 있다.¹⁷⁾ 흔히 개인의 주관적 ‘평가’와 ‘판단’을 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 인지적 평가 중심의 입장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의 정동 등을 중심으로 주관적 안녕도를 살펴보는 것이 정서적 접근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모델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Diener의 삼각형 모델이 ‘찾은 긍정적 정동, 드문 부정적 정동,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같은 인지적 평가’를 포괄하고 있는 데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인지적·정서적 측면의 안녕감은 구별되긴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로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¹⁸⁾ 따라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지적·정서적 측면을 포괄하는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여 특정 인구의 안녕감 정도를 다른 인구집단과 비교하는 작업을 시도해 왔다. 더 나아가 사회학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안녕감 관련 지표를 함께 개발하고, 이러한 지표에 기반하여 특정 집단의 종합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려는 노력도 경주해 왔다.

17) 권석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욕망과 행복의 관계,” 『철학사상』, 제36권(2010), 124~125쪽; 김신영·백혜정,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143쪽.

18) Edward F. Diener,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1984), pp.542~575.

이러한 노력이 쉬운 것은 아니어서 정의나 척도 도출에 대한 합의는 아직도 미완의 과제이다.¹⁹⁾ 그리고 많은 경우, 영역에 따라서도 삶의 질은 매우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종일 외는 6가지 영역에 걸쳐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하였는데, ‘교육’ 영역이 최상위권인 것을 포함하여 ‘보건과 안전’ 등 사회제도적 조건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 측면은 상위권이었으나 ‘주관적 행복’ 영역은 비교 대상 국가들 중 최저의 결과를 보였다.²⁰⁾ 즉 경제적·사회제도적 조건이 행복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주관적 안녕감은 매우 낮을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객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제도적 환경과 주관적 정서 및 사고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자 한 심리학 분야의 연구에 도움 받았다. ‘만족도’나 ‘행복’ 등의 개념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면서 정서적·인지적 접근을 포함하는 ‘안녕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 것도 심리학 연구에서 받은 영향이 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안녕감’과 관련한 주류 심리학 연구처럼 특정 지표를 중심으로 개개인의 안녕감을 수량

19) 특히, 학자들 사이에서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정의 및 이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동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져 온 반면,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주관적 안녕감은 ‘주관성’이 개입되므로 개념 정의 및 측정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도는 문화에 따라, 개인의 인생 경험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측정이 매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은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데 있어 인지적·정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하면서도, 측정에 보다 유리한 인지적 측면을 ‘만족도’로 정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이현송,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23권 1호(2000), 93~94쪽.

20) 박종일 외,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121~154쪽.

회하여 측정하고,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인구집단의 주관적 안녕감을 다른 집단과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다. 즉, 이 글은 ‘안녕감’에 대한 심리학적 정의 — 개인의 자신의 처지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만족도와 같은 인지적 평가 — 를 참조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안녕감을 개인적이고 실체적인 것, 따라서 측정 가능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는 거리를 두고자 한다. 인간의 마음이 개인 속에 존재하는 실체라기보다는 관계적이며 상황적이라는 인류학적 관점에 기대어, 이 글은 영국 북한이주민들의 안녕감을 관계적 맥락 속에서 발견되며 특정 상황 속에서의 내러티브와 행동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특정 인구집단의 공식적·‘평균적’ 안녕감에 주목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마음이 발견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들의 ‘안녕감’을 경험적·서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맥락적 안녕감이 관계적 세계 속에서 구성되며, 관계적 세계 속에서 구성된 개인적 안녕감이 다시 관계적·문화적 세계를 구성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이들 난민들을 자율적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 글이 북한이주민들의 ‘안녕감’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 특정한 방향으로의 행위를 유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는 뉴몰든 북한이주민들의 ‘안녕감’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주조하려는 태도와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을 현장연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뉴몰든의 북한이주민은 영국 사회에서 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 즉 ‘객관적으로’ — 소수자이다. 이들은 인종적·문화적 소수자이며, 경제적으로도 대체로 하층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현재 처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재현을 하곤 했는

데, 필자는 이것이 이들이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관계적’ 맥락에서 현재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은 영국 북한이주민들의 안녕감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이들이 차용하는 ‘관계적 비교’의 맥락에 주목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관계적 비교’는 단지 영국난민들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재현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 또한 이들의 안녕감을 분석하는 데 있어 ‘관계적 비교 접근’의 관점을 가진다. “관계적 비교 접근(relational comparative approach)” 방법은 주로 비판도시학자나 페미니스트 공간연구자들에 의해 주창되어 왔다.²¹⁾ 이들은 도시나 공간에 대한 전통적 비교연구 방법이 공간을 주어진, 그리고 경계 지어진 것으로 다루어 왔으며 두 개의 상호 배타적 맥락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 비교연구 방법의 인식론적/방법론적 한계를 비판하며, 관계적 비교 접근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즉, 이들은 도시나 공간을 “장소에 영토화되어 있는 동시에 열려 있고 공간을 가로질러 연장되는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²²⁾ 이를 통해 이들은 우리가 다른 도시나 공간의 “상호연계된 경로 — 어떻게 공간들이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연루되어 있는지 —”를 강조함으로써 “서로에게 질문하도록” 제안한다.²³⁾ 이 관점은 공간을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것이 아닌, 사회적 관계를 주조하는 힘이자 동시에 사회적 관계로부터 구성

21) Gillian Hart, “Denaturalizing Dispossession: Critical Ethnography in the Age of Resurgent Imperialism,” *Antipode*, Vol.38, No.5(2006), pp.977~1004; Kevin Ward, “Towards a relational comparative approach to the study of cit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34, No.4(2010), pp.471~487.

22) Kevin Ward, *Ibid.*, p.480.

23) Kevin Ward, *Ibid.*, p.480.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즉 공간은 다양한 행위 주체, 구조, 실천들이 경합하는 장이자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다층적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비판도시학자들과 페미니스트 공간연구자들의 문제의식에 기반하되, 물리적 공간들과 이를 구성하고 연결하는 요소들을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이러한 공간을 넘나들며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재)구성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는 일련의 연구들과 그 궤를 같이 한다.²⁴⁾ 연구 대상자의 경험과 내러티브 속에서 등장하는 다수의 사회적·물리적 공간 및 존재, 그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와 연구 대상자들의 정체성 및 ‘안녕감’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현재적 삶을,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물리적·사회적 공간을 가로지르는 관계와 실천을 포함한 다층적 맥락 속에서 드러내었고, 표정과 몸짓, 그리고 언어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재현하였다. 이들의 현재적 삶에 대한 ‘안녕감’은 “동시에 물질적이지자 의미로 가득 찬 일상의 실천에 의해 역동적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²⁵⁾ 따라서 이 글은 인간의 정체성과 사고, 감정 등이 어떻게 다른 존재 및 상황과의 관계에 의해서 끊임없이 협상되고 (재)구성되는지 주목하는 관계적 비교의 한 사례가 될 것이다.

24) 대표적 연구로 다음을 들 수 있다. Marco Eimermann and Svante Karlsson, “Globalising Swedish countryside? A relational approach to rural immigrant restaurateurs with refugee backgrounds,” *Norsk Geografisk Tidsskrift-Norwegian Journal of Geography*, Vol.72, No.2(2018).

25) Gillian Hart, “Denaturalizing Dispossession: Critical Ethnography in the Age of Resurgent Imperialism,” p.980.

3. 맥락으로서의 조우(encounter)

문화인류학자 Faier와 Rofel은 “조우의 민족지(Ethnographies of Encounter)”에서 흔히 독립적이고 경계가 분명한 것처럼 다뤄지곤 하는 문화, 정체성 등이 결국 조우(encounter)의 결과물임을 주장한 바 있다. 문화적 의미, 실천, 그리고 주체성이 일상 속에서 구성되고 또 재구성됨을 주장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문화만들기(culture making)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관계에 있어서 불공평하게 위치 지어진 존재들 사이의 조우(encounter)에 의해 구성되는지” 드러내었다.²⁶⁾ 즉 조우는 이를 통해서 정체성, 생각, 감정, 행동 등이 만들어지는 장이며,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북한이주민들의 ‘안녕감’을 구성하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조우에 대해 이들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뉴몰든의 코리안 종족 집거지와 준거집단으로서의 남한이주민²⁷⁾

북한이주민들이 자신들의 현재적 삶을 긍정하는 표현을 할 때, 그들의 발화 지점은 영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중에서도 뉴몰든의 코리안 종족 집거지이다. 즉 이들의 안녕감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영국

26) Faier, Lieba and Lisa Rofel, “Ethnographies of Encounter,”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43(2014), p.364.

27) 이 절의 분석 내용과 유사한 논의를 필자가 공저한 다음의 논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수정·이우영, “영국 뉴몰든 코리아 타운 내 남한이주민과 북한난민 간의 관계와 상호인식,”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1호(2014), 137~174쪽. ‘안녕감’과 ‘조우’의 중층적 성격을 논의하기 위해 민족지적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안녕감’의 맥락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라는 사회, 그리고 뉴몰든이라는 코리안 종족 집거지와와의 조우이다. 2000년대 초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서 미국 주도로 시작된 글로벌 북한 인권레짐과 이에 기반한 EU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출신 이주민들이 영국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²⁸⁾ 2004년 첫 북한난민 인정 이후 2009년 영국의 난민인정 절차가 엄격해지기 전까지 600명 이상의 북한 출신 이주민들이 영국 사회에 진입하여 난민신청을 했으며, 앞서도 언급했듯이 2018년 현재 이 중 다수가 영주권을 받았고 일부는 시민권을 얻기도 했다.²⁹⁾

이들이 영국을 이주지로 선택한 이유는,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관련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선진대국”이라는 점(“대영제국”), 선진적인 복지제도와 자녀들의 영어교육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점 등을 이주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이들의 현재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이러한 기대가 일정정도 충족되고 있다는 느낌과 생각에 기인하는 바 크다.

영국이라는 선진대국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은 특히 이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커진 듯한데, A 씨와 B 씨는 각각 영주권과 시민권을 필자에게 보여 주면서 이를 획득하던 순간의 감격을 생생하게 전했다. 많은 북한이주민들에게서 들었던 {내가 대영제국의 시민이 되다니~}라는 감탄을 이들도 반복하였고 B 씨의 경우 {시민권을 받

28) 이희영, “국제 인권장치와 비극의 서사: 탈북 난민들의 독일 이주에 대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109호(2016), 191~228쪽.

29) 이수정·이우영, “영국 뉴몰든 코리아 타운 내 남한이주민과 북한난민 간의 관계와 상호인식”; HaeRan Shin, “The Territoriality of Ethnic Enclaves: Dynamics of Transnational Practices and Geopolitical Relations within and beyond a Korean Transnational Enclave in New Malden, London”; Jay Jiyoun Song and Markus Bell, “North Korean secondary asylum in the UK.”

았을 때 눈물이 쏟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영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은 이들에게 이동성의 확대와 보장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제 세계 어떤 곳이든 못 갈 데가 없다.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구경해 보고 싶다. 김정은이보다 더 많은 나라를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B 씨,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북한에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영국 사람들은 북한에서 환영한다니까}라는 A 씨의 이야기는 이러한 ‘이동의 자유와 가능성’ 측면에서의 만족감을 잘 드러낸다.

더불어 이들은 경제적인 맥락에서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시스템에 대한 만족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A 씨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보자.

여기서는 마음이 편안하죠. 내가 혹시 사고가 나서 병신이 되거나 먼저 죽더라도, 우리 집사람과 애들은 정부에서 돌봐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죠, 여기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A 씨는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이 놓이죠”라는 표현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B 씨의 경우 복지제도의 대상임에 대한 만족감과 영국 사회에 대한 ‘감사함’을 여러 번 표시했다.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우리가 영국에 뭐 해준 것도 없고 세금을 많이 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 잘 챙겨주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죠}라는 식의 발언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필자에게 매우 자주 하곤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많은 북한 이주민들처럼, 그녀가 대표적으로 든 예는 노인복지였다.

여기는 노인 천국이예요. 노인 수당 따로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비도 나오고. 걱정할 게 없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복지 다음으로 기대했던 바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주제는 자녀 교육과 특히 ‘영어’였다. A 씨와 B 씨 모두 자녀를 데리고 영국으로 온 경우이며, 이들의 이주 결정에는 자녀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갈망이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는 아이}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가 컸다. A 씨와 B 씨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 애들이 영어는 네이티브지, [영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 혹시 대학을 못 가더라도 어디 가서 차별받거나 밀리지는 않겠죠.}(A)

{우리 ***는 영어는 기본이잖아요? 영어를 기본으로 하면…… 독일어도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프랑스어도 배우기 쉽고…… 그러면 어딜 가도 잘 살 수 있겠죠……그런 생각하면 희망이 있죠.}(B)

물론 영어는 자신들에게는 여러 측면에서 좌절을 안겨주는 기제이기도 하다. 영어를 편안하게 구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취업 등에서 선택의 폭이 좁아든지, 영국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영어에 더 익숙해지면서 때로는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 세대의 이러한 불편함은 영어를 원활하게 구사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자녀들을 위한 기꺼운 희생으로 번역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영어로 척척 통역을 해 주는” 자녀들에 대해 자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영국에서의 삶은 이들에게 이주 이전 기대하지 않았던 측면에서 만족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필자는 다양성과 느슨함, 느린 속도에 대한 이들의 상찬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종족적 다양성 속에서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두드러지지 않고 그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느슨하고 느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의 장점에 대한 얘기가 자주 언급되었다. 서두에서 소개한 “이주민이 많아서 좋다”는 B 씨의 이야기는 북한이주민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로서 영국 사회 인적 구성의 초 다양성이 종족적 소수자인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추리닝 입고 아이 데리러 가도 되는”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획일적 외모를 준거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 “저 녀이 되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심심할 정도로 여유로운” 사회에 대한 만족감도 자주 표현되었다.

한편, 이들의 발화의 지점은 이렇듯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데다,” “기회가 많고,” “여유로우며,” “차별이 적은” ‘대영제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뉴몰든이라는 코리언 종족 집거지이기도 하다. 이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영국의 다양한 지역 – 주로 인구가 적은 지역 – 에 배치 받았지만, 다수가 한국말을 할 수 있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영어를 몰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뉴몰든의 코리아타운으로 이주했다.³⁰⁾ 이들의 언설에서 뉴몰든은 자신들의 안도와 자신감의 근원이 되는 공간이다. A 씨는 뉴몰든에 대해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먹고사는 것은 일없지. 영어 하나도 못해도. 일자리는 맘대로 구할 수 있거든요. 한인들이 우리 없으면 가게 운영을 못 하니까.}

뉴몰든 코리언 중 다수를 차지하는 남한이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졌고, 그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다.³¹⁾ 20,000여 명의 영국

30) 이수정·이우영, “영국 뉴몰든 코리아 타운 내 남한이주민과 북한난민 간의 관계와 상호인식,” 149쪽.

거주 한인 중 현재 4,000명 정도가 뉴몰든에 거주하고 있어 400명 정도의 북한이주민과의 인구 비율이 10 : 1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주민을 한인 사업을 위한 중요한 노동력이자 소비자로 위치시키며, 따라서 남한이주민들이 노골적으로 북한이주민들을 차별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영국이라는 더 큰 사회 내에서 같은 종족성을 띤 소수자라는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³²⁾

이 외에도 북한이주민들의 상대적 자신감은 그들이 자주 접하는 한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위치에서 비롯된다. 이를 A씨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한인들은 왔다 갔다 해요. 시민권 있는 사람이 적고…… 우리보다 불법이 많다니까요. 이제 북한 사람들은 다 영주권 갖고 시민권 갖고 이렇게 사니까.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뿌리가 없고…… 우리가 이제 뉴몰든 주인 이죠. 한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뉴몰든의 주요한 행위자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강조한 위의 언설은 동시에 북한이주민들의 주요한 레퍼런스가 남한이주민임을 드러내기도 한다. 북한이주민들은 ‘주류’ 영국 사회의 삶에 대한 접근성이 적다. 코리언 종족 집거지에서의 삶과 계층적 특성이 이들의 영국 주류 사회와의 접촉 국면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영국 사회의

31) 영국 사회에 남한 사람들이 의미 있는 규모로 진입하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로 논의된다. 그 이전, 상사와 외교관 위주로 구성되었던 ‘영국 교민’이 1980년대 후반 해외여행 자유화로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코리아타운 역사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 참고. 이진영. “런던의 코리아 타운: 형성, 구조, 문화.” 『재외한인연구』, 제27호(2012); 이수정·이우영, 위의 글.

32) 이수정·이우영, 위의 글.

주류의 삶과 계층 구조에 대해 완전한 ‘간파’를 하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가시화된 삶을 사는 남한이주민의 삶을 레퍼런스로 삼는다. 자신들이 일상에서 만나곤 하는, 영국 시민권을 갈망하지만 쉽게 획득하지 못하는 남한이주민들과 비교할 때, 영국시민권을 획득했거나 이를 얻을 자격이 있는 북한이주민들은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곤 하는 것이다. “대영 제국의 시민”이라는 이들의 발화에는 자신들이 접하는 ‘한인’들과 대비한 영국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법적·제도적 위치성에 대한 자부심이 포함되어 있다.

2) 조우의 시간적 깊이: 남한, 남한 사람이라는 비교 대상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안녕감은 시간적 깊이(temporal depth)를 갖는다. 현재에 대한 내러티브는 끊임없이 현재를 재구성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며, 이때 소환되는 과거는 현재적 구성물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는 현재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적 깊이 속에 위치시킬 때 북한이주민들의 안녕감은 더 명확해진다.

북한이주민들의 안녕감에 기여하는, 그리고 이들의 안녕감에 대한 발화에서 등장하곤 하는 영국이라는 대국, 뉴몰든이라는 코리언 종족 집거지, 그리고 남한이주민(“한인”)의 존재는 종종 이들의 과거, 즉 북한, 중국, 남한에서의 삶과 관계를 소환한다. 북한에서의 식량난과 억압, 중국에서의 불안과 위기감이 영국에서의 현재적 삶에 대비되어 자주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B 씨는 영국 사회에서 자신이 누리는 이동의 자유와 풍족을 북한에서의 부자유 및 결핍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친구들과 벤츠 타고 바닷가로 놀러갔다 왔어요. 친구가 택시를 하는데, 벤츠를 몰거든요. 우리가 차 타고 가는데 한 친구가 막 “야~~ 우리가 김정은이보다 낫다. 김정은이가 벤츠는 있을지 몰라도 영국은 못 오잖니” 해서는 우리가 다 “맞다, 맞아. 우리가 사는 게 김정은이보다 낫다” 했어요. 북한에서는 바닷가로 휴가 가는 건 꿈도 못 꿰어요. 우리 집은 산골에 있었거든요.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하고 복잡하죠.}

A 씨는 북한에서의 기근과 중국에서의 불안을 영국에서의 삶과 비교하며 이야기했다.

{[북한에서는] 먹을 게 조금 생기면 형, 동생 다 눈치 보는 거예요. 누가 먹을 건가. 나눠 먹으면 다 배꼽고 한 사람한테 물어주면 언제 또 먹을 게 생길지 알 수가 없거든. 중국 가서는 그건 해결됐어요. 먹는 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언제 신고할지, 늘 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왔다 하면 확 튀어야죠. 그게 사람 죽이는 거지. [영국에서는] 음식은 남아버리고 아무도 뭐라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꿈에도 생각 못 했지요.}

이렇듯 북한과 중국에서의 삶도 현재의 안녕감을 표현할 때 비교 자료로 자주 등장했지만, 가장 근접한 과거인 남한이라는 나라 및 그 나라에서 만났던 남한 주민은 현재 자신의 삶을 얘기할 때 가장 자주 발화되는 소재였다. “한국에서는”으로 시작한 문장이 뉴몰든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거나, 뉴몰든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 사회 경험과의 비교로 끝나는 경우가 매우 잦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뉴몰든의 남한이주민보다 한국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자주 자신들의 현재적 삶에 대한 준거점으로 삼곤 한다는 느낌들이 정도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필자가 영국 뉴몰든에서 만난 대부분의 북한이주민들이 남한을 경유하여 영국으로 재이주를 선택한 경우이며 대체로 수년의 남한 거주 기간이 있음에서 비롯된다. 다른 글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이들은 남한에서 획득한 다양한 경제적·사회문화적 자본을 활용하여 영국으로 재이주하였다.³³⁾ 특히 180여 국 이상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남한의 여권은 이들의 영국행에 결정적인 자원이 되었다. 뉴몰든의 북한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경험과 지원이 자신들의 오늘이 있게 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거죠}라는 류의 얘기를 자주 하곤 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북한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삶에 대해, “2등 시민”으로서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재현한다. 남한 사회와 그 사회에서의 경험은 현재의 안녕감의 주요한 비교 대상이며, 근거이기도 한 것이다.

남한에서의 삶과 경험은 이렇듯 이들의 이주과정에 자원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들의 뉴몰든에서의 삶에 대한 안녕감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은 뉴몰든에서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늘 남한을 레퍼런스로 가지고 온다. 많은 이들이 “한국 사회보다” 영국 사회가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 있고, 덜 경쟁적이며, 차이에 대한 포용이 훨씬 크다고 만족스러워한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삶은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경험으로 재현되며, 그 부정성이 현재 뉴몰든에서의 삶을 그럴 듯하게 느끼게 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위에서 소개한 북한이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긴 발화의 맥락 속에 위치시켜 보자. 예를 들어, A 씨가 뉴몰든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33) 이수정·이우영, 위의 글, 147~149쪽; 이희영, “국제 인권장치와 비극의 서사: 탈북 난민들의 독일 이주에 대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대해 한 얘기를 좀 더 길게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서 입원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막일을 하나까 깨끗 다친 거죠.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병신 되면 우리 식구들은 누가 먹여 살리나. 애 공부하는 누가 시키나.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이 편안하죠. 내가 혹시 사고가 나서 병신이 되거나 먼저 죽더라도, 우리 집사람과 애들은 정부에서 돌봐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죠. 여기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B 씨의 얘기 또한 실상은 한국과의 비교적 맥락하에서 발화된 이야기였다. 좀 더 길게 인용해 보자.

여기는 노인 천국이예요. 노인 수당 다 나오고, 따로 다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비도 나오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아휴……. 할머니들 애길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난방비 때문에 가스 다 꺼놓고, 장판 깔고 덜덜 떨었대요. 그래도 월세 내고 수도세 내고 그러면 뭐 반찬 하나 먹고 싶은 거 먹을 수가 없었고. 거기 비하면 여긴 천국이죠.

영국 사회의 복지제도와 관련한 이들의 만족감은 이렇듯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속에 위치시킬 때 더 잘 이해된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경험했던 일상적 불안과 영국 사회에서의 안정감의 대비는 좀 더 긴 역사성을 가진 듯도 하다. 감정 인류학 분야에서는 반복된 극단적 부정적 정서 경험이 신체화되어 잠재해 있다가 특정 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활성화되는 사례에 대해 보고하곤 한다.³⁴⁾ 북한과 중국에서 반복된 생존의 위기와 관련된 심각한 불안이 무한경

34) 정향진, “감정의 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 제46권 3호(2013), 178쪽.

쟁으로 특징지어지는 남한사회의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활성화되었다가 영국 사회의 ‘복지’를 만나면서 누그러지는 과정은 영국 북한이주민들의 내러티브 속에서 매우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들 또한 부분적으로 이러한 측면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짜 사회주의는 영국이 하고 있다}는 북한이주민들의 이야기는 이들이 몸으로 겪은 수난의 역사와 현재의 안도감을 동시에 함축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북한이주민들의 자녀 ‘영어학습’에 대한 열망과 이 열망이 영국 사회에서 채워지고 있다는 만족감 또한 한국에서의 경험에 기반한다. 이들은 한국으로의 이주 후 체감했던 {동포사회라서 문제없을 줄 알았는데 영어가 절반인 한국말을 접하고 느꼈던 절망감과 위축감}을 이주 동기로 자주 언급했다. 더불어 “사교육이 애들 미래를 결정하는” 한국 사회에서 “영어학원도 제대로 못 시키는,” 따라서 “아이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부모로서의 죄책감이 앞서 언급한 A, B씨의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는 아이}에 대한 자긍심으로 전환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영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기보다는 평가의 수단인 한국 사회에서 느꼈던 박탈감이 “영어 원조국인 영국”에서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사회의 초다양성과 관련된 안도 및 만족감 역시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탈북자라는 꼬리표}와 이와 관련된 차별의 경험이 “여기서는 더 이상 탈북자로 살지 않아도 되어요. 그냥 코리언이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근거가 된다. 북한이주민들은 초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진 영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출신국에 의해서만 분류되지 않고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로 구성된 다층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남북한 사람 간 차이

가 크게 주목되지 않음을 민감하게 파악했다. 이는 북한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기표가 차별이나 배제의 결정적 토대가 되었던 한국과 두드러지게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에서 애써 지우려고 한 북한말 악센트를 다시 사용하고, 북한이주민들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조직도 만들며 한국에서 지우려고 했던 정체성을 다시 찾으려는 시도를 보였다.³⁵⁾

더불어 영국으로의 이주는 한국 사회에 머물러 있을 경우 2등 시민이 되는 것이 확실시되는 자녀들에게 다른 기회를 열어준 성공한 기획으로 긍정적으로 의미화된다. {영어가 네이티브인 아이}에 대한 A 씨, B 씨 등의 기대와 더불어, 아이를 영국의 사립학교에 진학시킨 북한이주민 D 씨는 자신의 이주 선택과 아이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한국에 있었으면 맨날 ‘탈북민 아이’라는 소리밖에 더 들었겠어요? 그럼 우리 **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애. 또 내 실력으로는 한국 엄마들처럼 학원 보내고 그러지 못했겠쎄. 한국은 학원 다녀야 대학도 가잖아요? 여긴 애가 딱 머리가 좋다 싶으니까 선생님들이 애를 딱 키우더라고. 사립학교 장학금도 막 알아봐 주고. 아휴. 좀 더 커봐야 되겠지만, **이 데리고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것 같애. 옥스퍼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과 배제의 경험은 영국 사회에서 이들의 남한 이주민들과의 관계와 그에 기반한 안녕감에도 영향을 끼친다. 앞서

35)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주민들이 정체성을 숨기고자 하는 시도와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이수정,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85-126쪽.

언급했듯이 이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작은 규모로 인해 북한이 주민들의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족 경제 속에서 남한이주민들은 북한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한 남한 주민들보다 덜 지배적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으로 인해 북한이주민들의 지위가 안정되고 집합적 협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골적 차별의 정도 또한 매우 약화되었다. 따라서 북한이주민들은 남한이주민들과 접촉할 때 상대적인 자신감을 보인다. B와 A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차별에 대한 것, 대한 거는 크게 여기서는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나 그런 건 없어요. 여기 한인분들이 좀 낡 것 같어요, 내 생각에. 한국 보다는 이 차별이……. 완전 덜하지요. 한국은 차별이 완전 심한데 여기는 차별이 덜하지요.(B)

{한국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여기서는 한인들이 북한 사람 차별 못 해요. [차별했다가는] 당장 사람 못 구하고 그러면 운영이 곤란하지.}(A)

아직은 절대적인 권력관계에 있어서 열세인 남한이주민들에 대해서 갖는 북한이주민들의 자신감은 이렇듯 이들이 그러한 것처럼 한국에서 만난 한국인들과의 관계와 비교의 맥락 위에 둘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삶의 준거로서의 한국은 영국의 북한이주민들에게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데, 영국에서의 급여수준을 한국에서 받았던 급여와 비교해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40대 여성 C의 아래 인용문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할 때는 좀 어쨌든 막 뻑세고 힘들었어요. (아아). 그리고 식당

일이야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낫쎬요[나아 요]. 좀 낫다는 게 월급 좀 높여주니까 힘들어도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나라가 이 나라 세금이 세지만, 월급 타면 한국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대 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이 돈이면 만약 시[만약] 천오백 파운드면 한국에서는 월급이 얼마데 여기는 천오백 파운드 한국 월급에 두 배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힘들어도 월급 많이 주니까나 그래도 이렇게.

난민 인정이 되는 순간, 시민권을 따는 순간의 감격적 기억은 이렇듯 또 다른 기억 위에 쌓여 올려진 것이다. 한편 북한이주민들의 영국 사회에서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혹은 영국 사회에서의 생활을 구성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기억들과 이와 비교되는 영국 사회의 경험은 다시 한국 사회에서의 북한이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 한국 사회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북한이주민들은 중층적 정체성을 가지고, 북한이주민으로, 남한 사람으로, 코리언으로, 영국인으로, 다양한 맥락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살아간다.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들은 이들에게 더 많은 이동성과 소속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자신들의 삶에 대해 긍정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논문의 서두에 소개한 B 씨의 {이제 진짜 고향을 찾은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는 힘들었던 과거에 대한 소회이면서 동시에 어찌면 경계에서 살면서 다양한 소속을 협상할 수 있는 자유로움과 상대적 안녕감의 표현일 수 있다. A와 B 씨를 포함해서 많은 영국의 북한이주민들은 자신의 몸으로 영국과 한국을 잇는다. 필자는 북한이주민들이 서울의 가족이나 친척들을 방문했을 때 이들을 서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유연한 몸으로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며 잇는 이들은 한국의 가족이나 친척들의 재이주의 열망에 불을 붙이기도 한다. 영국에서

북한 사람들에 대한 난민 인정이 몇 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럽에도 꾸준히 신청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다른 국가로의 이동을 기획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영국의 북한이주민 들은 시공간을 넘나들며 삶을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간/장 소와 정체성을 창출한다.

3) 인류학적 조우, 조우의 인류학

한편, 북한이주민들의 “안녕감”의 서사가 발화되었던 상황이 항상 “남한에서 온 연구자”인 필자가 존재했던 상황임도 인지해야 한다. 사회과학에서는 오랫동안 ‘가치중립적’이며, ‘객관적’ 시각을 가진 존재로서의 연구자를 상정해 왔다. 인류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이러한 자연주의적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에스노그라피는 종종 “A 집단은 이러저러한 특징이 있다”는 식의 3인칭으로 기술되었고 연구자·저자의 정서적·인지적 경험은 에스노그라피에서 사라져서 독립적인 ‘일기’나 ‘회고록’에 담겼다. 예를 들어 3인칭으로 뉴기니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 치밀한 기록을 했던 말리노프스키는 사후 발표된 별도의 일기에서 “입장 지어진 주체(positioned subject)”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냄으로써, 매우 객관적인 듯한 외양을 띠었던 에스노그라피가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감정과 생각을 가진 인류학자의 주관적 경험에 물들어 있는지를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입증하였다.³⁶⁾

제1세계 출신 연구자의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한 연구라는 역사적 기원을 가졌고 비서구 사회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서구의

36) 다음 글 참고. Bronislaw Malinowski, *A Diary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비서구 식민화에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결과적으로 기여한 경력이 있는 인류학이기에, 탈식민 담론의 대두와 더불어 지식의 객관성,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대적으로 일찍, 강력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연구 대상자였던 ‘비서구’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식 생산자가 되어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으로써 촉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인류학적 지식이 결국 위치/입장 지어진 연구자와 역시 위치성을 가진 연구 대상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 글에서 소개하는 북한이주민들의 안녕감 또한 필자와 연구 대상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상황적 마음’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연구 방법 파트에서 설명하였듯이 필자와 연구 대상자들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오랜 기간에 걸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라포에 기반한 관계였다. 이는 주요 연구 대상자인 북한이주민들이 필자를 자신들의 집이나 일터에 초대해서 몇 시간씩 수다를 떨고, 카카오톡을 통해 일상적 안부를 묻고, 집안의 대소사와 사람들 간의 갈등에 대해 자주 의논 상대로 삼곤 했던 것을 통해 일정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글에서 인용한 발화들도 공식적 인터뷰 상황에서라기보다는, 일상적 만남과 수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온 연구자라는 위치성을 가진 필자의 존재는 이들의 마음을, 따라서 발화를, 특정 내용과 방향으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크다.

남한에서 온 연구자라는 필자의 위치성에 대한 북한이주민들의 의식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자신들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음을, 그 과정의 다양한 문제(흔히 ‘배신’과 ‘비법’이라는 표현으로 평가되는)들은 이해할 만한 것이었음을 인정받고자 하며 나아가

이러한 입장을 대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들의 재이주를 비난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여론은 한국 사회를 ‘탈북자’의 최종기착지로 단정하는 (한국 중심의) 국가주의적이고 분단문법에 기반한 매우 문제적인 것이지만 강력한 도덕담론으로 작동하고 있다. 뉴몰든의 코리언 커뮤니티 내에서도 한국을 거쳐 온 사실을 숨기고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의 ‘불법성’에 대한 비판들이 있다. 일부 북한이주민들은 필자에게 이주 초기 남한이주자들에게서 “한국을 거쳐 왔다는 사실을 신고하겠느냐”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북한이주민들은 자신들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들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곤 했다. 일부는 이러한 담론을 생애사적 맥락에서 비판하며, 필자에게 자신의 입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사실, 뉴몰든 북한이주민 중 일부가 필자에 대해 일정 정도의 신뢰를 쌓아 나가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2013년 현장연구 초기, 한국에서의 삶을 삭제하고 북한과 중국에서의 삶에 대한 ‘비극의 서사’를 중심으로³⁷⁾ 생애사를 들려주곤 하던 사람들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다 아시니까,” “이해하시니까” 하는 조건을 붙여가며, 자신들이 왜 한국을 떠나 영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때의 기대에 비해 어떤 점은 만족스럽고 어떤 점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동시에, 이들 북한이주민들이 필자가 자신들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남한

37) 이희영은 그의 글 “국제 인권장치와 비극의 서사: 탈북 난민들의 독일 이주에 대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209쪽)에서 독일로 재이주한 북한 난민들의 서사가 남한에서의 경험은 삭제한 채 북한에서의 빈곤과 인권침해 등 ‘인권 침해를 경험한 탈북 난민’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재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며, 이는 독일 난민 인정 과정에서의 필요성 때문임을 논의한다.

사람'임을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시간적 거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로서의 필자의 위치성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이들의 안녕감은 위치 지어진 존재들 간 상호작용의 상황적 결과물이다. 즉, 필자와 연구 대상자들 사이의 대화는 많은 경우, '적대적이지 않은 남한에서 온 연구자'와 '남한을 거친 뉴몰든 거주 북한이주민' 사이의 대화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A, B 씨 등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재현은 특정한 맥락에서의 수행적 행위(performative action)인 측면이 있다. 동시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필자의 관심 또한 '안녕감'에 대한 이들의 발화를 강화하였을 수 있다. '지지자'이자 '연구자,' '남한 사람'으로서 다중의 정체성을 가진 필자의 자신들에 대한 '관심'을 이들은 재빠르게 읽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저런 어려움에 대한 '상답'을 요청할 경우에도, 늘 "그래도 오길 잘했다"는 언급으로 이야기를 끝내는 경향이 있었다. 조우의 인류학으로 스스로를 위치시킴으로써 이러한 '편파성·부분성(partiality)'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지식과 정체성, 그리고 마음이 사실은 관계성 속에서 위치 지어진 것, 상황적인 것이라는 이 글의 기본적 입장에서 비롯된다.³⁸⁾

38) Donna Haraway, "Situated knowledge: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Vol.14, No.3(1988), pp.575~599.

4. 나가며

이 글은 영국의 한인 집거지 뉴몰든에 거주하는 북한이주민들이, 계급적·인종적 소수자이자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여전히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하면서도 왜,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재현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심리학에서 흔히 개인이나 집단의 긍정적 정동과 만족도를 측정하여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안녕감’이라는 개념을 인류학적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뉴몰든 북한이주민들의 마음의 일단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즉, 사람들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서사가 항상 (존재론적이기보다) ‘관계적’ 맥락을 가진다는 인류학적 논의에 기대어, 이들의 ‘안녕감’에 대한 맥락화된 이해를 시도한 것이다.

뉴몰든 거주 북한이주민들의 현재적 안녕감은 영국 사회와 코리언 중족 집거지인 뉴몰든이라는 장소와의 조우를 통해, 뉴몰든의 한인이주민들과의 관계적 비교를 통해 형성되고 있었다. 더불어 이러한 안녕감은 이들의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기도 했다. 북한과 중국에서의 삶이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가장 가까운 과거인 한국과 한국에서 만난 한국사람들이 뉴몰든에서의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레퍼런스로 가장 자주 등장하였다. 즉 이들의 현재적 안녕감은 시간적 깊이(temporal depth)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의 안녕감은 남한에서 온 인류학자인 필자와 조우의 과정에서 발현된 것이기도 했다. 이렇듯 이 글은 영국 거주북한이주민들의 ‘안녕감’을 공간과 시간을 가로지르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레벨의 조우(encounter)의 결과물로 제시함으로써, ‘안녕감’이 독립적이고 본질적인 감정이 아닌, 차이를 가로지르는 일상적 관계를 통해 구성되고 재구성

되며 동시에 역사성이 있는 문화적 구성물임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구성된 북한이주민들의 안녕감은 이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삶을 주조하도록 이끌고, 경계를 넘나드는 이들의 삶은 영국 뉴몰든이라는 공간/장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끼친다. 경계를 넘나들며 삶을 직조하는 ‘탈남탈북민’의 마음과 초국적 실천에 주목할 때 우리는 이들의 삶과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루성/관계성에 대한 자각은 우리와 그들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분단의 문법을 넘어서 ‘새로운 우리’를 구성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 접수: 6월 17일 / 수정: 8월 9일 / 채택: 8월 12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이용숙·이수정·정진웅·한경구·황익주,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일조각, 2012).

2) 논문

권석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욕망과 행복의 관계,” 『철학사상』, 제36권(2010), 121~152쪽.

김신영·백혜정,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제42권 6호(2008), 140~173쪽.

박종일·박찬웅·서효정·염유식,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제44권 2호(2010), 121~154쪽.

이수정, “접촉시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85~126쪽.

이수정·이우영, “영국 뉴몰든 코리아타운 내 남한이주민과 북한난민 간의 관계와 상호인식,”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1호(2014), 137~174쪽.

이진영, “런던의 코리아 타운: 형성, 구조, 문화,” 『재외한인연구』, 제27호(2012).

이현송,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23권 1호(2000), 91~117쪽.

이희영, “국제 인권장치와 비극의 서사: 탈북 난민들의 독일 이주에 대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109호(2016), 191~228쪽.

정향진, “감정의 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 제46권 3호(2013), 165~209쪽.

2. 국외 자료

1) 단행본

Malinowski, Bronislaw,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London: Routledge, 1922).
_____, *A Diary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2) 논문

Beatty, Andrew, “Anthropology and Emotion,”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Vol.20, No.3(2014), pp.545~563.

Diener, Edward, F.,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95(1984), pp.542~575.

Eimermann, Marco and Svante Karlsson, “Globalising Swedish countrysides? A relational approach to rural immigrant restaurateurs with refugee backgrounds,” *Norsk Geografisk Tidsskrift-Norwegian Journal of Geography*, Vol.72, No.2(2018), pp.82~96.

Faier, Lieba and Lisa Rofel, “Ethnographies of Encounter,”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43(2014), pp.363~377.

Haraway, Donna, “Situated knowledge: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Vol.14, No.3(1988), pp.575~599.

Hart, Gillian, “Denaturalizing Dispossession: Critical Ethnography in the Age of Resurgent imperialism,” *Antipode*, Vol.38, No.5(2006), pp.977~1004.

Pennacchini, Maddalena, Marta Bertolaso, Marta M. Elvira and Maria Grazia De Marinis, “A brief history of the Quality of Life: its use in medicine and in philosophy,” *Media humanities*, Vol.162, No.3(2011). pp.99~103.

Shin, HaeRan, “The Territoriality of Ethnic Enclaves: Dynamics of Transnational Practices and Geopolitical Relations within and beyond a Korean Transnational Enclave in New Malden, London,”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Vol.108, No.3(2018), pp.756~772.

Song, Jay Jiyoung and Markus Bell, "North Korean secondary asylum in the UK,"

Migration Studies, Vol.7, No.2(2019), pp.160~179.

Ward, Kevin, "Towards a relational comparative approach to the study of cit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34, No.4(2010), pp.471~487.

A Relational Understanding of 'Senses of Well-being' of North Korean Immigrants in the U.K.

Lee, Soo-Jung (Duksung Women's University)

North Korean immigrants whom I met in New Malden, U.K. during my three terms of fieldwork from 2013 to 2018 tended to express a “sense of well-being” in various ways when they talked about their present lives. They are soci-economic minorities in British society and still face various challenges in their daily lives. Still, they tend to evaluate/represent their lives in a very positive way. This article attempts to have a contextual understanding of their ‘sense of well-being.’ Based on anthropological discussions that we should always understand people’s identities and narratives in a relational context (rather than existential), this article presents the ‘sense of well-being’ of North Korean immigrants as a situational product of various levels of encounter, that, in turn has its own histories. In other words, it examines their ‘sense of well-being’ as a cultural construct that is

composed and reconstructed through everyday relationships across differences, rather than a set of independent and fundamental feelings.

Keywords: North Korean immigrants, North Korean refugees, United Kingdom, New Malden, senses of well-being, relational understanding, anthropology of encounter